

광양시 “문학·예술·미식 어우러진 가을 K-문화 향연”

市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축제’
오는 8-9일 망덕포구·배알도서
낭만음악회·숲밧줄 체험 등 다채

광양 망덕포구와 배알도 일대가 문학과 예술,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의 무대로 변신한다. 광양시는 5일 “오는 8일 윤동주 시 정원에서 ‘제5회 윤동주를 노래하다’가, 9일에는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축제’가 각각 열린다”고 밝혔다. 윤동주 시 정원에서는 8일 오후 3시 ‘망덕포구로 가을 마중 갑시다’를 주제로 윤동주의 시를 음악과 낭송으로 되살리는 ‘제5회 윤동주를 노래하다’가 진행된다. 피아노 연주와 시 낭송, 성악이 어우러진 이번

문학 콘서트는 문학과 음악이 함께 흐르는 감성의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망덕포구에서 별해는다리를 건너면 가을바람과 역새가 어우러진 배알도 섬 정원이 방문객을 맞고, 해맞이다리를 지나면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배알도 수변공원 특설무대에서는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4회 광양배알도 수변축제’가 펼쳐진다. 축제에서는 전통 광양김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낭만음악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어린이 댄스킹 선발대회 ▲숲밧줄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김밥을



시민들이 배알도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있다.

〈광양시제공〉

무료로 맛볼 수 있어, 인류 최초 김 양식지로서 광양의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가을 정취가 짙어 가는 이번 주말 윤동주의 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망덕포구와 축제의 열기로 들뜬 배알도에서

문학과 예술·미식이 어우러진 광양의 감성과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인근의 광양김시식지와 진월 조선수군지 전소기념관 등도 함께 둘러보신다면 한층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망덕포구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윤동주의 육필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지켜진 한국 문학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정병욱 가옥에서 약 500m 떨어진 ‘윤동주 시 정원’에는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바람이 불어’ 등 유고 시집에 실린 31편의 시가 모두 시비로 새겨져 있다. 그중 ‘바람이 불어’는 지난해 11월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버킹엄궁 국빈 만찬에서 직접 영어로 낭송하며 윤동주의 시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팜, 매출 52억 돌파…연말 60억 ‘눈앞’

올 목표 50억 조기 달성 ‘성장세’
전국 최초 B2B2C 모델 만족도 ↑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전략 주요

화순군의 대표 농·특산물 유통브랜드인 ‘화순팜’이 매출 52억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팜’은 지난달 올해 목표였던 50억원 매출을 조기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6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화순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공공 소품물 모델을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와 군민 체감형 유통혁신을 이끌고 있다. 군은 올해 초부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유통채널과 화순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와 기업·단체 전용 대량구매 채널, SNS 공동구매 및 기획세트 출시 등 다양한 전략이



주요했다.

또한 화순사랑상품권 간편결제와 ‘화순팜 e-선물카드’ 도입으로 지역화폐와 디지털 소비를 결합한 상생 소비문화를 조성했다. 이 같은 혁신이 농가에는 소득 향상, 군민에게는 혜택,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그 결과 화순팜은 공공 소품물임에도 민간 유통기업 수준의 기획력과 유연성을 갖추며 전국 단위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화순군은 성과를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망 확충과 신규 판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농가·기업·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모델을 확대해 ‘농업이 살아있는 디지털 유통도시 화순’을 실현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성과는 농민과 군민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며 “농민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군민이 자랑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 농촌 빈집 정비·관리 속도낸다

‘빈집정비·활용 TF회의’ 개최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추진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흥군이 체계적인 관리·활용 방안에 나선다. 장흥군은 5일 “최근 ‘빈집정비 및 활용 TF회의’를 열고 방치된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을 곳곳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빈집 관리와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장흥군은 자체 예산의 한계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TF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빈집 정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2026년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은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빈집관리대장’을 제작·운영하며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구입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와 활용 대책을 적극 추진해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쾌적하고 활력 있는 장흥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곡성군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 가동

불법소각 방지·미세먼지 저감 목표
21일까지 접수…내달 말까지 운영

곡성군이 농촌의 불법소각을 줄이고 깨끗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지원단’ 운영에 나섰다. 〈사진〉 5일 곡성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발생하는 고춧대·콩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농가 현장에서 직접 파쇄·처리하는 사업을 지난 3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가의 영농부산물 처리를 돕는 동시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파쇄지원단은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현장 파쇄에 나섰다.

특히 고령 농가나 거동이 불편한 농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연남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부산물 처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농가가 많았다”며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오늘부터 ‘제5회 고흥유자축제’ 개최

나흘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
외국 인플루언서 SNS 홍보

고흥의 대표 명품축제인 ‘제5회 고흥유자축제’가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사람향기(Humanity) 유자천국!!(Ujatopia)’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축제에 국내에서 활동 중인 20여개국 출신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해 고흥의 맛과 맛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이들은 8-9일 이틀간 유자밭 파노라마를 배경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 인플루언서들은 유자밭 막삼파티, 밤에 즐기는 ‘빛의 환희(루미너리)’, 유자 별관 체험, 대형 유자 조형물 포토존, 멀티미디어 드론쇼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며 생동감 넘치는 축제 현장을 전달한다. 나이지리아 출신 인플루언서 프리스카씨는 “유자 향기와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고흥유자 축제에 참여하게 돼 기대된다”며 “나이지리아 친구들과 팔로워들에게 고흥 유자와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크리스티나씨는 “이번 방문이 한국의 지역 축제를 세계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참여로 고흥유자축제가 세계 속 축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유자밭의 황금빛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고흥의 매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 금연상담 우수기관 선정

건강증진 기여…전남도지사 표창

담양군은 5일 “최근 지역주민의 금연 지원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연상담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지역 내 금연 분위기 확산과 흡연 예방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체계적인 클리닉 운영과 맞춤상담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거두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흡연자의 특성과 기간을 고려한 1대1 맞춤상담, 보조제 제공, 심리·행동상담 등을 통해 금연 성공을 돕고 있다.

특히 직장, 마을회관, 학교 등 생활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군민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표창은 금연을 결심한 대상자의 노력과 이를 돕기 위해 애쓴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연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금연클리닉 외에도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간접흡연 피해 예방 캠페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금연 정책을 확대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단풍축제 맞이 ‘식중독 예방’ 캠페인

구례군은 “최근 구례피아골단풍축제를 맞아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어귀피와 팻말 등을 활용해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 관리 ▲올바른 음식문화 실천(덜먹기,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나트륨·당 줄이기 등)을 홍보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기호식품 안전관리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